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쉬우나
자기 잘못을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5월 28일) 2021년 7월 7일 수요일



"만해 스님, 동국의 영원한 스승"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에서 수학하고 제1회 총동창회장을 맡았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다례재가 6월 2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처음으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묘주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박대신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다례재는 만해 스님이 동국문중의 자랑스러운 선대 어르신임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사진은 원행 스님이 만해 스님의 진영에 헌향하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에도 '1만일 기적' 이어진다

불교계 대표 만일결사들 지속 운영 눈길

27년 5개월 간 매일 실천
다양한 수행법 · 나눔으로
장소 구애 없이 지속가능
포스트코로나 시대 '적합'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수행은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정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이 수행에 매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사찰을 찾아 도반과 함께 수행정진하기도 쉽지 않다. 온갖 번뇌와 갈등으로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심신을 굳건히 다지고 싶다면 '만일결사'를 추천한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한국불교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다양한 형태의 만일결사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나와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상 수행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불교계 대표 만일결사가 잇따라 뜻 깊은 법석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6일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의 일환으로 출범한 '만일염불결사회'가 21주년을 맞은 것. 만일염불결사회는 결사도량인 **파주 보광사**(회주 보광)에서 21주년 법회를 봉행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법사로 새롭게 모셨다. 염불결사는 '아침에 예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를 표어로 매일 칭명염불 1000번, 염불선 20분 등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27년 10월 22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031)723-9797

6월 25일에는 **울진 불영사 염불만일수행공동체 '만결회(만일결사회)'**가 10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불영사 만결회는 2011년 6월 15일 일운 스님의 원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이 매일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취지다. 일운 스님이 매일 아침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마음편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풀어쓴 글과 사진으로 구성된다. 염불과 참선, 나눔 세 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도 결사회원들의 의무다. 나눔의 일환으로 매월 1만 원씩 모은 기금은 해외 결식아동 등을 위해 회향된다. 매년 1억 원 수준이다. 만결회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회향은 2038년 10월 31일이다. 054)783-5004

현재 진행 중인 만일결사는 염불과 절, 경전 독송 등 수행법을 중심으로 하되 나눔 · 봉사 등 대사회적 실천행도 함께한다.

서울 금강선원이 2011년 11월 26일 입재한 '보살사상 만일결사'는 1수행, 1바라밀행, 1봉사를 기본으로 한다. 독송, 염불, 참선 중 한 가지 수행법을 선택해 만일동안 수행 정진함으로써 내적성찰과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수행을 생활화하는 한편, 봉사를 생활화해 자비실천의 계기로 삼도록 했다. 결사회원들에게는 수행수첩을 만들어 매일 기록해 점검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회향일은 2039년 4월 12일이며 오는 8월 1일 입재 3600일을 앞두고 있다. 02)445-8484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는 1993년 3월 '정토행자 만일결사'에 입재해 현재 제9차 천일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의 행복과 정토세상 실현, 한국불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시작된 만일결사는 매일 아침 수행문 낭독, 108배와 명상, 하루 한 시간 마음책김, 매일 천 원 이상 보시,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내어 봉사 등으로 이뤄진다. 정토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기도문'을 작성하고 매일 초를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2)587-8990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는 2014년 8월 17일 '붓다로 살자' 운동 실천을 위한 만일결사에 입재했다. 회원들은 매일 〈법화경〉 독송과 108배, 명상, 사경 중 한 가지 수행을 선택해 지속하고 매년 동지에 팥죽나눔을 실천하는 등 봉사 · 나눔 실천을 이어간다. 특히 법륜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함께 수행정진하는 법석을 마련해 원력을 다지며 현재 3차 천일기도가 진행 중이다. 회향은 2042년 1월 1일이다. 031)332-5703

'절 기차게 하는 방법'의 저자 청견 스님이 이끄는 **절수행도량 법왕정사**는 2011년 11월 11일 '법왕수행만일결사_우리도 부처님같이'에 입재했다. 결사동참자들은 매일 108배 이상 절하고 빠알리경전을 공부하며 예불문을 독경한다. 또 매일 천 원을 보시하고 남을 위한 선행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한다. 회향일은 2039년 3월 28일이다. 010-3487-0035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지계염불 만일수행결사'를 입재, 매일 〈아미타경〉과 장엄염불을 독송하며 일체 생명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해 오고 있다. 051)294-9300

불교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결사인 전국염불만일회의 염불결사도 있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8월 6일 결사도량 건봉사에서 1500여 염불행자들의 자발적인 결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 불교신행의 새로움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사 회향일은 2025년 12월 21일이다. 02)732-1206

개발제한구역 內 전통사찰 · 문화재 부담금 50% 감면

국회 본회의, 6월 29일 가결
이헌승 의원 등 개정 발의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및 지정 · 등록 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제한 부담금이 기존 부과율 100%에서 50%로 감면된다.

국회는 6월 29일 제3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하고 수정가결했다.

해당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징,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율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00%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에 이헌승 의원 등 12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생활편의시설로 볼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다른 생활편익시설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며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소관위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안을 검토해 전통사찰 등의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완화시킨 법안으로 수정가결했다.

당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토지형질변경 부담률을 면제에서 50%로 완화한 이유에 대해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의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내 개발 행위의 억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국회 제385 · 제386 · 제388회를 거쳐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6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추진할 시 부담금 5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측은 당일 백양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토지부담금 부과율 완화에 따라 부담금이 50% 감액되는 성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이 필요한 사찰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후 토지보전부담금 부과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감면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